



특집 _ “한민족 뿌리 되새기자”, 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체험’ 강원도서 분단의 아픔 실감 모국생활 정보 교환한 값진 시간
화제 _ 미 전국 공직 선거서 ‘코리아 파워’... 주의원 4명, 시의원 6명 뉴욕 맨해튼서 한인 최초 선출직 판사 당선



“새가 비상하는 듯”… 1천400년 전 백제 장식기와 ‘치미’ 부여 왕흥사지서 출토·복원한 귀중한 건축자료 화려한 문양장식 돋보여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충남 부여군 왕흥사지 발굴조사 때 출토됐던 국내 최고(最古)의 치미. 조각난 상태로 땅에 묻혀 있었던 것을 복원했다. 사진은 치미 상부와 하부를 결합한 모습.



왕흥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를 3차원 입체 복원한 모형.

왕흥사지 치미는 출토 당시 지붕에서 떨어져 조각난 상태로 땅에 묻혀 있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를 수습해 남쪽 치미는 상부, 북쪽 치미는 하부를 복원하고 삼차원 입체영상 기술

로 상하부 전체를 복원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복원 이미지에 따르면 왕흥사지 치미는 높이가 123cm, 최대 너비가 74cm이다. 왕흥사지 치미는 전체적인 생김새가 꼬리를 세운 새가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연꽃무늬·구름무늬·초화(草花)무늬 등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됐다. 또 몸통과 깃 부분 사이에 있는 기다란 띠인 종대에 연꽃무늬 와당이 박혀 있다. 이 같은 연꽃무늬 와당은 왕흥사지의 전돌과 기와는 물론 부여 시대의 유물에서도 볼 수 있다.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왕흥사지 치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화려한 치미”라며 “백제 사비 도읍기의 기와 제작기술과 건축기술, 건축양식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는 “왕흥사지 치미는 중국 문화를 백제화한 사례로 신라 황룡사지 치미,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 치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부여 규암면에 있는 왕흥사지(사적 제427호)는 사비 백제의 왕궁터로 알려진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에서 보면 금강 건너편에 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767호)가 출토돼 577년에 창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

백제 위덕왕이 577년 세운 부여 왕흥사 터에서 나온 국내 최고(最古)의 ‘치미’(鷓尾)가 복원·공개됐다. 치미는 전통 건축물에 사용되는 장식기와로, 용마루 끝에 설치해 위엄을 높이고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13~2014년 발굴조사 중 동쪽 승방으로 보이는 건물터의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발견한 치미 한 쌍을 11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왕흥사지 치미는 이 절이 창건된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과 문양으로 볼 때 경주 황룡사지 치미, 부여 부소산 폐사지 치미, 익산 미륵사지 치미 등보다 제작 시기가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부여 왕흥사지 전경.

CONTENTS 2016.12



04



08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초청 동포 유학생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각지를 돌며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2016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 02 한국의 열** “새가 비상하는 듯”... 1천400년 전 백제 장식기와 ‘치미’ 부여 왕흥사지서 출토·복원한 귀중한 귀중한 건축자료 화려한 문양장식 돋보여
- 04 특집** “한민족 뿌리 되새기자”, 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체험’ 강원도서 분단의 아픔 실감 모국생활 정보 교환한 값진 시간
- 06 화제** 미 전국 공직 선거서 ‘코리아 파워’... 주의원 4명, 시의원 6명 뉴욕 맨해튼서 한인 최초 선출직 판사 당선
- 08 기획** 재일동포사회 이끌어 70년 격랑의 세월 헤쳐온 ‘민단’ 조국 어려울 때마다 도움 준 역사 기억해야!
- 10 글로벌 코리안** 제주대에 1억 원 쾌척한 80대 재일동포 사업가 좌옥화 씨 미 미주리대 사상 첫 한인 1.5세 총괄총장 문 최 뉴질랜드서 ‘한국 전도사’ 변신... ‘원조 우생선’ 김순숙 씨
- 12 동포소식** 각국 한인회장 새 얼굴... 프랑크푸르트 김윤제, 마드리드 강영구 씨
- 15 동포 캘린더** 한인 꿈나무 터전 ‘타이베이 한국학교’ 새 건물 완공
- 16 지구촌 통신원** ‘6·25 참전국’ 터키에 한국이 시리아 ‘난민학교’ 지원 시리아 난민촌에 1천명 학교 개교 연말까지 3곳 더 개교
- 17 유공 동포** 전쟁 영웅이자 인도주의자, 미주 한인 2세 故 김영옥 대령 평생 사회적 약자 위해 봉사... 교과서에 실린 한인회 ‘롤 모델’
- 18 한민족 공감** 트럼프 당선 도운 한인들 누가 있나... 향후 역할은? 리사 신, 미셸 스틸, 제이슨 정, 마샤 리 켈리 등 주목
- 19 주목! 차세대** 의사, 변호사로 성장한 호주 한인 쌍둥이 남매 남궁윤, 준씨 “호주와 한국 모두에 쓸모 있는 사람 돼야죠”
- 20 동포문학** 사람이 좋다 박새빛 _ 태국 _ 2016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최우수상
- 22 OKF 뉴스** 제주 세계한상대회 “200억 이상 경제유발 효과”
- 24 고향의 맛·멋** 식감 좋고 영양 풍부한 동해안 겨울 별미 도루묵 ‘톡톡’ 알 터지는 소리를 느끼며 먹는 맛, 일품
- 26 우리말 배워봅시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의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 뿌리 되새기자”, 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체험’ 강원도서 분단의 아픔 실감 모국생활 정보 교환한 값진 시간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초청 동포 유학생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각지를 돌며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2016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39개국에서 온 177명의 유학생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장학생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키워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현재 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 예정으로 어학연수 중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6·25 전쟁체험전시관, DMZ박물관, 양양 낙산사, 강릉 오죽헌, 영월 단종의 능 및 청령포 등을 방문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통일 추진’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한국역사와 안보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DMZ박물관에서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지도 만들기’ 퍼포먼스도 펼쳐서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행사 기간에 유학생 간 교류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시간도 열렸고, 유학생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지역별 리더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지역리더상’ 수상식도 열렸다.

재단 차세대사업부 관계자는 “역사 문화체험 행사 때 장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사전 안내를 하지만 선배 장학생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유학생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참가자들이 제일 반기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재단은 우수한 동포학생을 민족 정체성과 세계화된 지식과 사고를 갖춘 인적 자산으로 키우기 위해 1997년부터 초청 장학생사업을 펼치고 있다.



1. 역사문화체험 참가자들이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입구 홍예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역사문화체험 참가자들은 첫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들에 관한 교류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3. 재단 초청 장학생 177명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DMZ박물관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 기원 메시지와 함께 ‘한반도 지도 만들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2009년부터는 학사과정도 지원해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재단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 받는다.

장학사업 가운데서도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우수 동포 학생들의 고등 교육 지원은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모국에서 수학 중인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뿌리의식과 정체성 함양을 돕기 위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유학생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국과 재외동포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장**



강원도 영월군의 단종 릉인 정릉에서 참가자들의 릉의 유래와 단종의 삶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참가자 소감

“분단의 고통 간직한 모국, 의사의 마음가짐 배워”



박장희
가톨릭대 의예과
2학년(멕시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많은 아픔을 겪은 나라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그것을 직접 살아오신 분들의 삶을 통해 의학도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울 점들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2박 3일간 재단에서 마련한 강원도 역사문화체험에 참여하면서 이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동시에 찢어진 수많은 가족들과 관계들, 그리고 마음들 - 통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가 새롭게 와 닿았다. 한국 또한 고통 받고 있는 하나의 ‘환자’란 생각이 들었다.

재단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동시에 모국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할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끈기와 ‘하나 됨’을 향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좋은 의사, ‘아픔’을 알고 그것을 치료해가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나는 적어도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한글을 가르칠 때 한글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정서를 곁들여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모국 연수 계기로 유학결정, “한-스페인 가교 역할 할 것”



허경한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3학년(스페인)

재단이 주최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 참가한 후 스페인 현지 대학 진학에서 모국 유학으로 꿈이 바뀌었고, 장학생으로 선발돼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성장했기에 현지어와 문화를 잘 알지만 이번 기회에 모국의 문화와 언어, 풍습 등을 제대로 배울 작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스페인 간 협력이 늘어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번 역사문화 체험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군 생활을 했던 강원도 탐방이라서 더 새로웠다. DMZ나 박물관에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애국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온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DMZ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 염원한 시간”



류선하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과정(중국)

이번 체험 연수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DMZ 박물관에서 학생들이 손잡고 한반도 통일 지도를 만들어보고,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한국이 휴전국인 것을 망각하곤 한다. 도심은 그토록 평화로운 듯이 느껴진다. 실제로 비무장지대는 서울과 10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북한은 손짓만 해도 보일만한 곳에 있다. 화가 난다. 북한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단이 억울하고 두 지역이 군사분계선을 사이 두고 으르렁 거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어떤 이념이 분단보다 더 중요한지 빛이 중한지 모르겠다. 나는 2006년 북한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북한 측 판문점에서 한국 땅을 바라보았던 생각이 났다. 우리는 재외동포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북이라는 퍼즐과 남이라는 퍼즐이 있다. 두 퍼즐이 합쳐져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전망대·단종역사관서 현대와 고대사 배운 유익한 시간”



박웅욱
연세대 대학원 치의학
박사과정(중국)

고성 통일전망대와 6·25전쟁체험전시간, DMZ박물관에 이어 영월 청령포 답사, 장릉 및 단종역사관 답사는 현대사와 고대사를 함께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중국어 성장해 거리낌 없이 남북한 양쪽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나에게 분단은 가슴 먹먹해지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아리랑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련해지는 한민족이라서 더 그렇다. 동족상잔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빌었다.

단종 묘에서는 세조를 떠올렸다.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속죄를 위해 불교에 귀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기록에 남겼다. 역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미 전국 공직 선거서 ‘코리안 파워’ … 주의원 4명, 시의원 6명 뉴욕 맨해튼서 한인 최초 선출직 판사 당선

미국 전역에서 11월 8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공직 선거에서 한인 정치인 13명이 당선되며 ‘코리안 파워’를 과시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시를 중심으로 한 주 하원 68선거구에서 출마한 최석호(미국명 스티브 최·공화) 어바인 시장은 61%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지금까지는 어바인 시민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졌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 사업하기 어려운 규제를 혁파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0년 주 하원 68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예선에서 패한 그는 ‘어바인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이번 선거에 나서 성공했고, 앨프리드 송, 영 김 전 의원에 이어 한인으로는 3번째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에 올랐다.

최 당선자는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국무부가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강사로 뽑혀 1968년 미국에 이민했다.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남가주대(USC)와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UCI) 교수로 재직했다. 1993년 학원 사업을 시작해 1998년부터 6년간 어바인 시 교육위원을 지낸 뒤 시의원에 당선해 8년간 시의회에서 일했다. 2012년 어바인 시장에 당선된 후 재선했다.

워싱턴 주 하원 32선거구에서 4선을 노리고 출마한 신디 류(한국이름 김신의·민주) 의원은 75%가 넘는 득표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류 당선자는 “유권자 4만 5천 명 가운데 한인은 1천여 명 정도였지만 많은 후원을 해줘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워싱턴 주 지역의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나아가 한인 차세대 정치 지도자 양성과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1969년 부모를 따라 시애틀에 이민해 워싱턴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MBA를





수료한 그는 졸업 후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2005년 49살 늦깎이로 쇼어라인 시의원에 당선됐고, 2008년 시장으로 활동하다 2010년 주 하원의원에 도전해 '재미동포 여성 최초'로 당선됐다.

조지아 주 하원 101선거구에서 3선의 현역 공화당 후보와 맞붙은 한인 2세 샘 박(민주) 후보는 개표 마감 결과 총 1만 186표(52.04%)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는 지역내에서 박병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당선자가 됐다. 박 당선자는 "함께 팀을 이뤄 선거운동을 하고, 문을 열어주고 신뢰를 보낸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며, 이런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했던 우리 가족을 한인 커뮤니티가 도와주었듯이 커뮤니티에 의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당당히 동성애 자임을 밝혀 시선을 끌었고, 주 의회 역사상 첫 동성애자 당선자가 됐다.

뉴욕 주 하원 40선거구에 도전한 론 김(민주) 의원도 당당히 3선 고지를 밟았다. 1986년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1.5세인 그는 마크 웨프린 뉴욕 시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2012년 하원의원에 첫 당선 됐다.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포트리, 테너플라이 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크리스 정(민주), 피터 서(민주), 대니얼 박(민주)은 모두 수성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라팔마의 피터 김 시의원도 재선에 성공했고, 워싱턴DC 현턴시의 그레이스 한 울프 시의원도 4선 고지를 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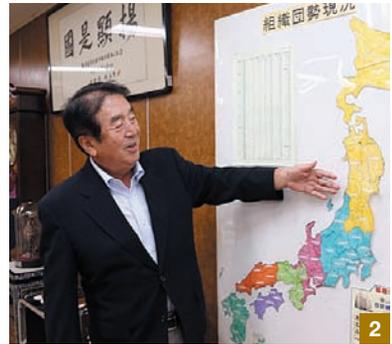
맨해튼 민사법원 4지구 선거에 나선 주디 김(민주) 변호사는 한인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당선됐다. 지역에서 그동안 임명직 한인 판사가 배출된 적은 있지만 한인 선출직 판사는 김 변호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84지구 판사직에 도전한 수잔 정 타운센드 검사는 높은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입양한인 로리 스테그먼(한국이름 김평숙·여) 씨는 오리건 주 멀트노머 카운티 4선거구의 커미셔너에 당선됐다고 동포 언론 '시애틀N'이 전했다. 멀트노머는 오리건 주의 36개 카운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인구가 76만 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6개월이던 1960년 7월 포틀랜드의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포틀랜드주립대를 졸업한 뒤 보험업에 종사하다 2010년 그레섬시 시의원에 당선됐다. 2014년 재선돼 시의장으로도 활약했다. 더 큰 정치 무대 진출을 위해 카운티 커미셔너에 출마한 그는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1위를 한 뒤 본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10%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

1. 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최석호 오렌지 카운티 여바인 시장.
2. 미 워싱턴 주 하원의원으로 4선에 성공한 신디 류 씨.
3. 미 오리건 주 멀트노머 카운티 커미셔너에 당선된 입양한인 로리 스테그먼(한국명 김평숙)
4. 미 뉴욕 주 하원의원으로 3선 고지를 밟은 론 김(사진 앞줄 왼쪽)



재일동포사회 이끌며 70년 격랑의 세월 헤쳐온 '민단' 조국 어려움을 때마다 도움 준 역사 기억해야!



1.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민단 중앙본부 건물.
2.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이 10월 1일 도쿄 미나토구의 민단 중앙회관에서 일본 전역에 48개 지방분부와 276개 지부를 거느린 민단 조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의 중심점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1946년생으로 민단과 동갑내기인 오공태 단장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동포 2세인 그는 “민족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재일동포로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온 민단이 70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일동포 사회의 중심점인 민단은 일본의 외국인 차별 정책에 맞서 차근차근 권리를 쟁취해왔고, 친북 단체인 총련과의 대결 등으로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숨 가쁘게 달려온 70년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민단 단장은 초대 박열 단장부터 오공태 단장까지 48대에 이른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박열은 일본으로 건너가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다 천황 암살 미수로 22년간 감옥에서 지냈다. 출소 후 초대 민단 단장에 취임해 활동하지만, 조직 내부의 세력 갈등에 밀려나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6·25 동란으로 납북되어 잠시 활동을 보인 뒤 현재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잠들어 있다. 그의 질곡 어린 생애는 어쩌면 민단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암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인회 대신 민단이란 명칭을 가진 점, 남북한 분단에 따른 조총련과의 대립, 주재국 차별 대우 등은 재일동포 사회가 처해온 남다른 환경과 시련을 말해준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역사는 조국에 기여한 대목에서 단연 돋보인다. 중국의 경제발전 이면에 화교 자본이 있듯이 한국경제가 두 발로 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민단의 도움이 컸다.

재일동포 기업인 서갑호(1915~1976) 스토리는 뿌듯함과 통쾌함마저 안겨준다. 일본에서 방직 사업으로 부호가 된 그는 1962년 8월 도쿄 시내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 현재 주일한국대사관이 들어선 부지는 메이지유신 때 일본 총리가 살던 노른자위 땅으로 땅값이 조 단위에 이른다. 영사관 등 일본 내 10개 공관 가운데 9개의 부지와 건물이 동포들의 기금과 모금운동으로 마련됐다.

1950년 6·25가 터졌을 때는 조국을 구하겠다고 일본에 유학하던 고교생 대학생 642명이 학도의용군에 자원입대했고 전사자가 135명에 이른다. 1963년에는 재일동포들이 산업은행을 통해 조국에 100만 달러를 보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1천만 달러였고 실제 쓸 수 있는 외화는 10만 달러에 불과했다. 국내 최초 수출전용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순전히 재일동포의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만들어졌다. 88올림픽 때는 100억 엔을 보냈고 이 돈으로 각종 올림픽경기장과 대한체육회 건물을 지었다.

IMF 때도 재일동포들은 20억 달러 규모의 성금을 모아 조국에 보냈다.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액수가 19억9천만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민 것이 재일동포들이었다. 재일동포들의 조국애가 유별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분단의 아픔과 현지 차별 대우를 겪으면서 조국 사랑의 심정이 더 절실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재일동포들의 도움이 이렇게 컸음에도 국내 교과서에 한 줄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단 앞에 가로놓은 숙제는 귀화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 대처, 지방 참정권 확보,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진출한 '뉴커머'와의 융화 등 한둘이 아니다. 재일동포의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눈앞의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첫 작업이라고 본다.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기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존재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으로의 이민 역사는 한국의 근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1884년 갑신정변을 전후해 고베, 요코하마 및 도쿄에 조선인 거주가 확인된다. 이주는 조선이 일본에 강점되는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1916년까지 1만 명 이내였던 일본 내 조선인은 1920년 4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탄광이나 도시 건설 시장의 노동자로 일했다. 지식인들의 일본 유학도 본격화됐다. 1923년에는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인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되는 비극을 겪었다. 1930년대에는 조선인의 일본 이민이 사실상 성숙기에 들어가 1938년에는 80만 명을 넘어섰고 80%가 가족 단위 이민자로 재일 조선인 이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1945년 일제가 패망했을 당시 여러 이유로 귀국선을 타지 못하고 일본에 체류하게 된 한인들은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권리 보장에 나섰다 1946년 10월 3일 민단 출범이 이뤄졌다. 외교부의 2014년 말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사는 동포는 85만5천725명으로, 전 세계 720만 동포의 약 11.91%를 차지한다. 이는 2년 전보다 4.19%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 가운데 일본으로 귀화한 동포는 35만5천274명(41.52%)이다.

현재 민단은 중앙본부 아래 6개 지방협의회와 산하 지방본부를 두고 있다. 또 부인회, 상공회의소, 청년회, 체육회, 학도의용군지회, 학생회, 과학기술협회 등을 거느리고 있고 기관지 민단신문과 도쿄한국학교, 오사카백두학원, 오사카금강학원, 교토(京都)국제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단은 5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인천·울산·대구·대전·광주·제주 등지를 돌며 9월 초까지 '재일동포 110년과 민단 70년의 발걸음'이란 주제의 사진전을 열었다. 10월 21일에는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



3. 작년 12월 25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에서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선생의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4. 재일동포 외화 송금운동.
5. 동일본 대지진 때 재일 동포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 일본 오사카(大阪) 이쿠노(生野)구의 코리아타운.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 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7. 금년 8월 5일 민단 히로시마 지방본부 주최로 거행된 한국인 원목 희생자 위령제.



GLOBAL KOREAN

제주대에 1억 원 쾌척한 80대 재일동포 사업가 **좌옥화** 씨

“꿈도 목표도 공짜...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뛰어라.”



“왜 기부를 했느냐고요?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를 사랑해서!” 제주 출신 재일동포 좌옥화(83) 씨는 11월 15일 제주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렸을 적에는 너무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학교에 기부하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금이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다. 좌 씨는 “내가 올해 여든세 살.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겐 너무도 영광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서귀동 출신으로 65년 전 열일곱 살에 일본 도쿄로 간 좌 씨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렵게 메이지대학을 나온 뒤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국인이 일본에서 여행사 허가를 받아 자리를 잡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고생하는 재일동포 1세대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국내·국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람에 끈끈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좌 씨는 “교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도 자리를 잡고 잘살게 되니 교포들 데리고 독일올림픽도 가고 파리 국제박람회도 가며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2년에는 고향 제주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이 발전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서귀포 동홍동 공원에 3천600만 원을 쾌척, 높이 8m 규모의 시계탑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시계탑에 ‘젊은이여 뛰어라. 세계를 향해’라고 적혀져 있다”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뛰어갔으면 좋겠다. 꿈도 공짜고, 목표도 공짜다.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일단 열심히 뛰어봤으면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미 미주리대 사상 첫 한인 1.5세 총괄총장 **문 최**

개교 177년 만에 첫 아시아계 총장... “교내 인종차별 적극 대처”

미국 미주리 주 최대 공립대학인 미주리대 대학 시스템을 총괄하는 총장으로 한인 1.5세 문 최(Mun Y. Choi · 52) 코네티컷대 공대 학장이 11월 2일 임명됐다. 최 신임 총장은 177년 역사를 지닌 미주리대에서 아시아계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총장직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이날 미주리 주 제퍼슨 시 캐피톨 플라자 호텔에서 미주리대 시스템 제24대 총괄총장으로 임명된 뒤 지

난 1년간 미주리대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시위와 관련해 “학생들을 비롯해 학내 구성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며 인종차별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우려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리 대학 시스템은 컬럼비아 미주리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 세인트루이스 미주리대, 미주리 과학기술대로 구성되었다. 총괄총장은 미주리 대학 시스템 내 4개 대학 전체를 대표한다. 최



총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1.5세대. 그는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모교인 일리노이대에서 교수로 처음 임용된 이후 드렉셀대를 거쳐 2008년 코네티컷대 공대로 옮겼다. 공대학장은 2012년부터 맡고 있다. 그의 미주리대 총괄총장 내정은 지난 1년간 미주리대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시위와 무관치 않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인종차별 혐의를 치른 미주리대가 교내 화합과 쇄신을 이끌 적합한 인물로 아시아계 출신을 선

임했다”고 전했다. 본교인 컬럼비아 미주리대는 지난해 4월 대학 기숙사에서 나치 상징의 철십자 문양이 발견되고 소수 인종을 겨냥한 기물파손 행위가 발생하면서 교내 인종차별 시위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학 측 조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팀 울프 총괄총장의 풋볼팁 흑인 선수 폼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확산했다. 같은 해 11월 울프 총장이 물러나고 임시 총괄총장으로 사상 처음으로 흑인인 마이클 미들턴 전 명예 부총장이 임명되면서 시위는 일단락됐다. 최 총장은 내년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뉴질랜드서 ‘한국 전도사’ 변신... ‘원조 우생순’ 김순숙 씨

웰링턴 한인회장 당선 뒤 K-컬처 페스티벌 등 훌륭히 치러내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주장으로 이름을 떨치던 ‘원조 우생순’ 김순숙(58) 씨가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한인 1천여 명이 사는 웰링턴 한인회장에 당선된 뒤 7월에 ‘K-컬처 페스티벌’, 9월에는 ‘한가위 축제’를 열어 한국의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 ‘K-팝 콘서트’와 한국 전통의상 공연, 한국 음식 시식 등으로 4천 명이 넘는 웰링턴 시민이 참가한 ‘K-컬처 페스티벌’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웰링턴 축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취임 3개월 안에 훌륭하게 치러낸 밑바탕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김 회장의 뜨거운 ‘조국애’가 있다. 그는 11월 17일 연합뉴스와의 국제통화에서 “젊은 시절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조국을 위해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또렷해진다”며 “내가 사는 이곳은 뉴질랜드지만 대한민국을 한 번도 잊어 본 적이 없다. 가슴에 달린 태극기는 오래전에 고국에 넘겨주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태극기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1977년 핸드볼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주장을 맡아 뛰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예선전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꺾고 티켓을 거머쥐었을 당시 핵심 선수였다.

1984년 은퇴 후 일본 유학을 떠나 도쿄 여자체육대학, 도쿄 학예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 연세대, 한양대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다리, 발목, 무릎 등의 수술을 12차례 받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그는 한국 생활을 접고 2000년 11월 뉴질랜드에 이민했고, 한 달 뒤 한국식당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Taste of Korea)를 개업하면서 정착했다. 지난해 12월 건강이 안 좋아 식당을 접었다가 최근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 ‘해아래’를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 회장은 “한국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웰링턴 시민에게 한국의 맛을 알려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맛뿐만이 아니라 식당 입구에 한국의 발전된 영상을 설치해 손님에게 보여준 것도 한국 알리기 일환이었다”고 소개했다. **장**



각국 한인회장 새 얼굴... 프랑크푸르트 김윤제, 마드리드 강영구 씨

각국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에 새 얼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회는 10월 29일 정기총회를 열어 선거인단 35명 전원의 찬성으로 한인 1.5세인 김윤제 씨를 차기 회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1만2천여 명을 대표하는 프랑크푸르트 한인회는 50년 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김 씨는 당선 소감에서 “1세대를 위한 경로·효도 잔치를 열고, 상사주재원·다문화가족 등의 한인회 참여도 유도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소통하며 끈끈한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1977년 14살 때 부모를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이주했다. 한인 첫 독일 공인 광학안경사가 돼 안경점을 열어 운영하다 사업가로 변신했으며 지난 4년간 한인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는 같은 날 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강영구 씨를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그는 찬반 투표에서 대의원 55표 중 54표의 찬성표를 받아 제12대 회장에 올랐다. 세계 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마드리드 지회 부회장인 강 당선자는 “한인회는 3천여 한인 모두의 단체인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항상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종현 싱가포르 한인회장은 연임이 결정됐다. 현지 한인회 선관위는 지난달 차기 회장 입후보 공고를 했으나 출마자가 나오지 않아 최근 회의를 열어 노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12월 13일 취임하는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회장을 다시 맡게 돼



김윤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신임 회장



강영구 마드리드 한인회장 당선자



노종현 싱가포르 한인회장 당선자

어깨가 무겁다”며 “더 멋진 한인회를 만드는데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1984년 당시 대성목재공업(주) 말레이시아지사장으로 나갔다가 2년 뒤 그만두고 싱가포르에 건너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8~9대 한인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월드옥타 싱가포르지회 상임 부이사를 맡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남부한인연합회,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 디트로이트한인회가 최근 한인회장 선거를 치렀다. 동남부 5개 주 26개 한인회를 총괄하는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제27대 회장에 뽑힌 손환 당선자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미국에 전파하고, 주류사회와 커뮤니티에 한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37대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임성배 씨는 “지역 동포들을 위해 봉사 헌신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며 “한인사회 숙원인 밴쿠버한인회관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디트로이트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차진영 씨도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12월 4일 취임하는 그는 “디트로이트한인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미 간 경제 사회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숙순 현 중국한국인회장은 11월 초 마감한 제9대 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그는 12월 중순 열리는 중국한국인회의 정기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고려문화원’ ... “한류 진원지 되길”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인 알마티에 민간인이 설립한 ‘고려문화원’(K Culture Center)이 문을 열었다. 이 문화원은 현지 한인일보 발행인이며 ‘센트럴 아시아 마케팅’사를 운영하는 김상욱 대표가 세웠다. 알마티 중심가에 있는 김 대표 소유의 2층 건물 내 181㎡(약 55평)를 개조해 한국문화 홍보실·회의실·전시공간 등을 꾸민 것이다.

초대 원장을 맡은 김 대표는 10월 24일 “19일 오후 열린 개원식에 고려인 동포사회의 원로와 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중앙아시아 한류 확산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원은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에게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이자 한국에 대한 모든 호기심과 궁금증을 채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대형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설립된 고려문화원 개원식이 10월 19일 고려인 동포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V를 통해 한류 드라마, K-팝, K-Health, K-Beauty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식에 참석했던 나제스다 니콜라예브나 고려인원로회 부회장은 “고려인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노래교실, 한국어 수업, K-팝 등 한류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개원과 함

께 전시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조한 화장품 샘플을 선보이고 있다. 1995년 알마티에 진출한 김 원장은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어과 교수, 알마티 한글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한민족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1937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한 고려인 후손 11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재외국민도 2천500여 명에 달한다.

“21세기 독립운동가 될래요.”... 호주 한인청소년 ‘민족캠프’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황명하)와 시드니 한국교육원(원장 강수환) 공동 주관으로 호주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청소년 민족캠프’가 시드니의 한 수련시설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합숙으로 열렸다. 남녀 중고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해외 한인 청소년 대상의 이러한 합숙 행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의 중요

성을 깨달아 해외의 한인 청소년들이 ‘21세기 독립운동가’ 혹은 ‘민간외교관’으로 성장·활동하게 하자는 게 이 행사의 취지다.

행사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태극기와 독립운동 이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 독도의 중요성, 남북협력과 통일방안 등



호주 시드니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간의 합숙으로 열린 ‘제2회 청소년 민족캠프’ 참가자들이 촛불로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 놓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진도 화려해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의 장세운 박사 등 2명, 신기현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교수, 북한 전문가인 레오니트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초빙교수, 천영미 한국연구재단 박사, 안신영 시드니 한국문화원장 등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짝짝한 프로그램 중간마다 독립군가와 순국선열 노래 배우기, 강강술래와 사물놀이 같은 민속놀이도 곁들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부모님 뜻에 따라 참석하게 됐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막연히 알던 독도나 군 위안부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진도 화려해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의 장세운 박사 등 2명, 신기현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교수, 북한 전문가인 레오니트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초빙교수, 천영미 한국연구재단 박사, 안신영 시드니 한국문화원장 등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짝짝한 프로그램 중간마다 독립군가와 순국선열 노래 배우기, 강강술래와 사물놀이 같은 민속놀이도 곁들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부모님 뜻에 따라 참석하게 됐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막연히 알던 독도나 군 위안부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새 주한 호주대사 동포 1.5세 제임스 최, 내달 부임

호주 한인동포가 주한 호주대사 직에 임명됐다. 한국계 호주대사 임명은 1961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11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주재 호주대사에 제임스 최(46·한국명 최웅)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동포 1.5세인 최 신임대사는 최근까지 집권 자유당 부대표로 핵심 각료인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 수석보좌관으로 일해 왔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최 대사를 임명하면서 한국과 호주 쌍방의 무역규모가 지난해 360억 호주달러(32조 원)로 한국이 호주의 4대 교역국이라며, 두 나라는 교육과 관광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대사는 서울에 근무하면서 북한 대사직도 맡게 되며 내달 부임할 계획이다. 동포로는 성 김(한국명 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 대사로 부



주한 호주대사로 부임할 한인 1.5세 제임스 최

임하게 된다.

최 대사는 4살 때인 1974년 부모와 함께 호주에 이민 왔다. 시드니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했으며 1994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교통상부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일했으며 2010년대 초 덴마크 대사를 지냈다. 총리실과 뉴욕 유엔본부에서도 일했다. 최 대사는 지난해 8월 캔버라 연방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공청회를 비롯해 시드니의 젊은 전문직 한인 모임에도 참석해 격려하는 등 한국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호주 한인사회는 지난달 동포 1.5세인 이슬기(37·영어명 엘리자베스 리) 씨가 캔버라 지역의 수도준주에서 주 의원에 당선, 한인 첫 주의원 당선자로 기록된 데 이어 또 하나의 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재미동포 한혜영 작가, 동화 '로봇이 왔다' 국내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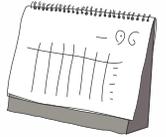
앞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의 외로움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과연 로봇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동화가 나왔다. 재미동포 시인 겸 동화작가인 한혜영(여·62) 씨는 10월 21일 '로봇이 왔다'를 국내에서 출간했다. '세상을 넓게 보는 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동화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세계를 그렸다. 동화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라라가 실종되고, 그의 어머니는 친딸을 복제한 로봇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라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의심에도 차츰 반려 로봇인 '가짜 라라'를 '진짜 라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전히 친딸을 찾고 있던 라라 어머니는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로봇 라라를 챙겨 주지 않고 밖으로 나갈 때가 많다.



재미동포 한혜영 작가가 펴낸 동화 '로봇이 왔다' 표지

그러던 어느 날 로봇 라라는 우연히 손목을 베고 마는데, 도와줘야 할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당황한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태양 광선으로 충전해야 하는 로봇 라라는 충전이 불가능했고, 방전으로 인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한 작가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 훈련, 자폐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어린이 치료에 도움을 주는 로봇이 등장하는 등 세상은 빠르게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가 밀접해져 가고 있다"며 "이번에 출간한 동화는 로봇과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는 '로봇 가족 동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장편동화 '빨난 쥐'를 출간한 지 3개월 만에 '로봇이 왔다'를 낸 한 작가는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창]**



한인 꿈나무 터전 '타이베이 한국학교' 새 건물 완공

대만 타이베이 한국학교는 2014년 시작된 새 교사 신축 공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11월 15일 완화(萬華)구 청니안(靑年)로에 있는 학교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전 세계 33개 한국학교 가운데 1960년 4번째로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이 학교에는 현재 유치원생 7명과 초등학교생 30명이 공부하고 있다. 새로 지은 학교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로, 교실 6칸, 강당, 도서실, 유치원 2칸 등을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1962년 개교 이래 54년 동안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포문제연구원 서울서 재일민단 70주년 정책포럼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원(이사장 이구홍)은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일민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2016 교포정책 포럼'을 열었다. '인물을 통해서 민단 70년을 조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이구홍 이사장과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박열, 권일 등 민단의 주요 역대 단장과 관련 인사들을 통해 본 민단의 역사를 소개했다.



伊 한류 '전초기지'... 로마 한국문화원 개원

유럽 역사와 문화의 뿌리인 이탈리아 로마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10월 26일 로마에서 개원 기념식을 열고 이탈리아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세계에서는 31번째, 유럽에서는 10번째로 문을 연 것이다. 초대 원장은 6년 전 폴란드에 문을 연 한국문화원의 산파 역할을 한 이수명(49·오른쪽 두 번째) 씨다.



호주 시드니서 '제3회 한호 정경포럼' 성황리에 열려

호주의 한인과 정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2016 한호정경포럼'이 11월 2일 시드니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호주 정치경제포럼(회장 옥상두) 주최로 열려 올해로 3회째인 이 행사는 시드니 릴리필드의 '르 몽타주' 평생센터(function center)에서 열려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포럼과 만찬이 이어졌다. 포럼에서는 레오니트 페트로프 호주국립대학 초빙교수가 '한호관계와 한국통일 전망'을, 론디 차관이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2년'을 주제로 각각 정치와 경제 분야의 기초연설을 했다.



김포시, 평화통일예술제 ·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열어

경기도 김포시의 평화통일학술제와 제1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이 11월 9일 김포아트홀에서 열렸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에서는 조강 문화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영구 귀국해 김포에 사는 사할린 동포가 말하는 러시아문화와 김포문화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등이 만나는 한강 하구일명 '조강(祖江)'을 품고 있는 김포시가 720만 명의 재외 한인 동포를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 포럼을 준비했다.



독일서 '동포청년 교류' 행사 개최

주독일 한국대사관 본(Bonn) 분관은 11월 19일 쾰른 시민센터에서 "2016년 동포청년 친목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원로와 독한협회 관계자, 한인 2세, 한독가정 자녀, 한국입양인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독일 중부지역 한인 2세들이 2014년 11월 결성한 단체인 '한도'(Hando)가 주관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린 것이라고 본 분관은 전했다.



‘6·25 참전국’ 터키에 한국이 시리아 ‘난민학교’ 지원 시리아 난민촌에 1천명 학교 개교 연말까지 3곳 더 개교

하채림 | 연합뉴스 터키 이스탄불 특파원



1. 시리아 난민학교 앞에 펼쳐지는 태극기. 10월 18일 터키 가지안테프 주 이슬라히에 제2 난민보호센터에 한국 지원으로 신설된 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윤수 주터키 한국대사가 축하하고 있다.
2. 개교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블커팅 하는 모습. 왼쪽부터 라마잔 이을드름 이슬라히에 군수, 난민학교 교사 대표, 할릴 우유마즈 가지안테프 주 부지사, 시리아 난민 어린이, 조윤수 대사, 젠기즈 아른 터키 재난위기관리청 국장.

터키에 한국 지원으로 시리아 난민 아동을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다. 주터키 한국대사관과 터키 재난위기관리청(AFAD)은 10월 18일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주(州) 이슬라히에 제2난민임시보호센터에서 시리아 난민학교(이하 이슬라히에 난민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이슬라히에 난민학교는 한국이 직접 지원해 올해 건축한 시리아 난민 학교 4곳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터키에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차원의 간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원으로 시리아 난민학교를 세운 나라는 벨기에와 뉴질랜드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이날 문을 연 이슬라히에 난민학교는 1천명을 가르칠 수 있다.

이슬라히에 제2 난민캠프에는 시리아 난민 1만3천80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3천700여 명이 학령기 아동이다. 기존 학교는 천막을 교실로 이용했기에 시설이 부실하고 수용 인원도 부족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가정 형편 등이 겹쳐 이슬라히에 제2 난민캠프 아동 5명 중 1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이슬라히에 지방정부 관계자는 “한국 지원으로 신설된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더욱 안락하고 우수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학년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학교’는 가지안테프와 샨르우르파에 총 3곳이 더 개교할 예정이다. 터키 내 학령기 시리아 난민 아동 가운데 약 60%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을 정도로 난민 교육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날 이슬라히에 난민학교 개교식에는 조윤수 주터키 한국대사, 젠기즈 아른 AFAD 발전국장, 할릴 우유마즈 가지안테프 주

부지사 등 두 나라 당국자와 캠프의 난민 어린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근 요르단과 달리 외부에 난민 임시보호센터 공개를 가능한 한 꺼리는 터키는 이날 개교식을 위해 특별히 취재진에 캠프를 개방했다.

조윤수 대사는 “6·25 전쟁을 겪었고 탈북자가 늘어나는 한국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교육으로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했듯이 시리아도 교육으로 내전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젠기즈 아른 AFAD 국장은 개교식에서 축사를 통해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군이 한국에 세운 양카라학교가 1970년대까지 운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한국이 터키와 손잡고 난민학교를 세우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



개교식에서 아이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상)과 학교 전경.

전쟁 영웅이자 인도주의자, 미주 한인 2세 故 김영옥 대령 평생 사회적 약자 위해 봉사... 교과서에 실린 한인회 '롤 모델'

“진정한 영웅은 사후에 더 유명해지고 평가받는 법이다.” 김영옥 대령(1919~2005)이 그렇다. 2007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린 서울 쉐라톤워커히호텔. 전 세계에서 모인 한인회장들은 미주 한인 2세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이자 인도주의자로 이름을 떨친 김영옥 대령을 한인회의 ‘롤 모델’로 삼자는 의견을 냈다. 대회 토론회에서 장태한 미국 UC리버사이드대학 교수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전쟁영웅’인 김영옥 대령은 한인회와 동포 2, 3세의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엠에스엔닷컴(msn.com)은 2007년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미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명을 선정하면서 김 대령을 포함했다. msn은 김 대령에 대해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예편했으나 한국전쟁이 터지자 재입대했고, 한국전쟁 당시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통역장교가 되는 대신 보병부대에 들어갔다”고 ‘참군인’의 면모를 소개했다. 2010년 미주 한인사회를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소가 UC리버사이드 캠퍼스 내에 설립되어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로 명명됐다. 2009년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인의 이름을 딴 중학교 ‘김영옥중학교’도 LA에 문을 열었다.

김영옥은 LA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김순권 선생은 독립운동가였고 누나인 월라 김은 뮤지컬 의상디자이너로 토니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프랑스 전선에 투입,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공을 세웠고 미 특별무공훈장과 이탈리아 최고무공훈장, 프랑스 십자무공훈장을 받았다. 6·25가 터지자 자원입대해 중부전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능력을 드러냈다. 전쟁 외증에서 500여 명의 전쟁고아를 돌봤다. 1960년대 한국군 군사고문 시절에는 한국 방어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한국군 최초의 미사일 부대를 창설했다. 김영옥이

영웅으로 평가받는 것은 전선에서의 뛰어난 공로뿐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1972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 미국 정·재계의 영입 유혹을 물리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입양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했다.

노령과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조사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전쟁 때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평생 따라다니던 고통도 그의 봉사 정신을 가로막지 못했다. 2005년 숨진 김영옥 대령은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혔다.

김 대령의 생애는 재미 전기작가 한우성 씨가 일대기 ‘영웅 김영옥’을 펴내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1년 김영옥 대령의 이야기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렸고 군에서도 신입 장교들에게 그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 **창**

- 1. 김영옥 예비역 미 육군대령이 2003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당시 모습.
- 2. 미 ‘전쟁영웅’ 김영옥이 한국전쟁 참전 당시 돌보던 보육원 아이들.
- 3.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서 2009년 9월 개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소재 ‘김영옥 중학교’ 건물 전경.

트럼프 당선 도운 한인들 누가 있나... 향후 역할은? 리사 신, 미셸 스틸, 제이슨 정, 마샤 리 켈리 등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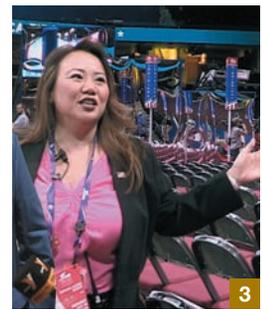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8일 열린 대선에서 승리해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를 도운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주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대거 몰려있고 트럼프 캠프에는 극소수만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정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운동에 앞장선 대표적 한인은 뉴멕시코 주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리사 신 박사와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제이슨 정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아태담당 공보국장, 공화당 전당대회 총괄책임자를 지낸 마샤 리 켈리 등이 꼽힌다. 정 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이 가운데 신 박사는 7월 말 오키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때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찬조연설을 해 주목받았다. 신 박사는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주제로 연설에서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가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우리의 부모와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 줄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가 트럼프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이민 2세인 신 박사는 지난해 4월부터 페이스북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 모임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였다.

스티ล 수퍼바이저도 트럼프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뛰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전당대회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트럼프)을 대통령으로 밀어도 되겠다 싶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해 나갈 것으로 본다. 지도 한미 간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틸은 2006년 당시 미 전역에서 한국계로는 최고위직인 캘리포니아 주 제3지구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공동시장 격)로 선출된 후 올해 1월 수퍼바이저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공화당 '터줏대감'인 정 국장은 전당대회를 전후로 트럼프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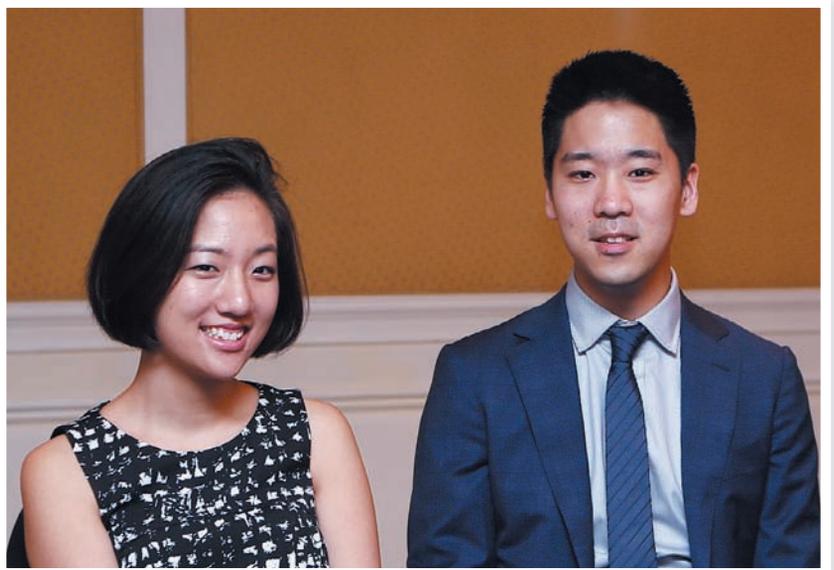
인의 메시지를 알리고 주요 한인들의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 각종 굵은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전부터 "일반 풀뿌리 대중의 지지를 얻는 트럼프가 당의 단합을 이루고, 반드시 힐러리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했다.

오랜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열성 지지자인 켈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운영 총괄책임자로서 올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켈리는 선거 초반부터 주변에 "트럼프를 좋아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장**

-
- 1. 한국계 미국인 리사 신(48) 박사가 7월 21일 미국 오키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도운 한인들. 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좌)와 제이슨 정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
 - 3. 미 공화당 전당대회 운영 총괄책임자로 활약한 마샤 리 켈리.

의사, 변호사로 성장한 호주 한인 쌍둥이 남매 남궁윤, 준씨 “호주와 한국 모두에 쓸모 있는 사람 돼야죠”

“우리는 100% 한국인이고 100% 호주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며 두 나라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분 차이로 누나와 동생이 결정된 쌍둥이 남매 남궁 윤, 남궁 준(25) 씨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호주에서 의사와 변호사로 성장한 남매는 재외동포재단이 10월 17~21일 서울과 광주광역시, 전주시에서 주최한 ‘2016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나란히 참가했다. 10월 1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기자와 만난 남매는 “4살 때 부모를 따라 모국을 떠나 그런지 호주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됐는데, 아직 한국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웃음을 지었다. “독도·동해·일본군 위안부 등 한국과 관련한 문제를 호주 한인사회나 현지 언론이 거론할 때 사실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밴크의 활동 사례를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돌아가면 틈틈이 공부할 것입니다.” 남매는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누나가 이야기하자 동생이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호주 내 교과서나 웹사이트에서 한국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 바로 잡는 일도 해보고 싶고, 나아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호주사회에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콘퍼런스에 처음 참가했다는 남매는 “이번 대회가 깨달음을 많이 주는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더 많은 차세대가 참가해 같은 경험을 하고, 거주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들은 1994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이민했다가 2000년 호주 시드니로 이주한 전형적인 1.5세대. 간발의 시차로 세상에 나왔지만 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

누나 남궁 윤 씨는 뉴사우스웨일스대 의대를 졸업하고, 로열

노스쇼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시드니대 대학원에서 의료정책 관련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앞으로 심장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는 그는 병원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는 “준이는 똑똑하고, 저는 노력파였어요. 호주식 수능 결과를 보면, 준은 사회, 경제 쪽에 결과가 좋았고, 저는 과학, 생물 시험을 잘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문과 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죠.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려면 이과 쪽 사고방식으로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라며 웃음 지었다. 남궁 준 씨는 시드니대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가 돼 법무법인 ‘민터엘리슨’에서 근무한다. 남매는 현재 호주한인전문가협회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 준비, 기획에서 진행(MC)까지 맡아서 하고 있다. 또 후배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호주인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단체 회원 중 대회에 먼저 왔던 참가자의 추천으로 방한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 모두가 이민자라 마음이 푸근했어요. 서로의 이민사를 들으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더 느꼈죠. 제 이야기, 제 부모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얘기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창**

사람이 좋다

박새빛 태국 | 2016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최우수상

한국을 떠나 산지 10년이 넘는 지금, 내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살았던 장소도 특별한 사건도 아닌 사람이다. 내가 외국에서 한 일보다 중요하건 내가 만난 사람과 그들이 내게 끼친 영향이다.

한국, 네팔, 인도, 태국 등등 여러 나라를 다녔고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힘들던 때에 손을 내밀어준 친구, 위기에서 건져준 손길들, 그리고 늘 뒤에서 힘이 되어 준 사람들. 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고 또 다른 추억거리가 생겼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만났고 모두가 내게 소중한 인연이었다.

이렇게 멋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소통했다는 건 내게 큰 자랑이면서 감사한 일이다. 내가 만난 그들이 긴 타국 생활에서 얻은 재산이자 추억이고 또 그리움이다.

통통 부은 눈으로 자기를 잊지 말라던 초등학교 단짝 다정이를 뒤로 한 채 머나먼 인도에 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때 나는 알파벳도 겨우 떴던 한국의 흔한 ‘초딩’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친구를 사귈 엄두는 당연히 내지 못했다. 엄마 손을 잡고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미니마우스 치마를 입고 놀이터를 가도 생김이 다른 나를 보며 커덕거리며 어느 누구도 다가와주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참 쉬웠던 “나랑 친구할래?”라는 말이라도 현지어로 할 줄 알았으면 더 다가가기 쉬웠을 거다. 외톨이처럼 보이는 게 싫어 엄마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려던 참에 크고 까만 눈동자에 까무잡잡하고 아담한 아이가 다가왔다.

“툼하라 남 끼야 해?” 아이가 말했다. 내 이름을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엄마랑 연습했던 말이기 때문이기에 “메라 남 새 빛 헤” 라고 침착하게 대답한 후 부듯해하는 동안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미히카 라고 밝히고 나의 손을 잡고 미끄럼틀로 이끌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유일하게 다가와 준 덕분에 외로웠던 타지 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해 준 소중한 아이였다. 이후로 그 아이와 종종 놀이터에서 놀았고, 아빠의 일로 인해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는 서툰 영어로 작별을 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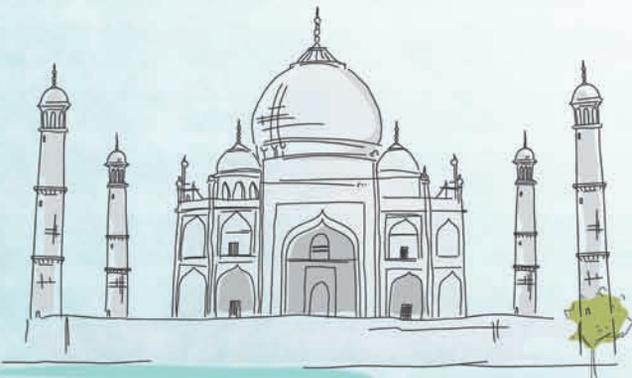
내 손을 꼭 잡아 주며 “씨유 어게인” 이라 말한 그 아이를 안타깝게도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난 미히카의 까만 눈동자와 곱슬거리는 짧은 머리카락을 추억한다.

우리 가족이 새로 거처를 옮긴 지역은 한 시간 거리에 네팔 국경이 있는 인도 북쪽의 실리구리라는 시골도시였다. 인도에서 한국인에게 비자 연장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 가족 또한 쉬지 않고 비자 여행을 다녀야했다. 비자의 기간에 따라 여행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 3개월 비자를 받은 우리는 연장을 위해 네팔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면 인도 대사관이 있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까지 가는데 딱 1시간이 걸린다. 가족 5명의 항공료가 우리가족에게는 버거워서 이틀이나 걸리는 버스를 탔다.

버스 여행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고달픈 시간의 연속이었다. 버스 바닥이 송송 뚫린 건 물론이요, 2박 3일 동안 몸을 기대야 했던 의자는 딱딱하고 젖혀지지 않았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 애교였다.

다섯 시간에 한번 정도 나오는 휴게실엔 화장실이 딱



두 칸 있었다. 6년도 더 된 일이지만 내가 큰일을 보느라 자신의 불일을 화장실 앞에서 그냥 본 언니에게는 아직도 미안한 맘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틀을 보내야 하는 것도 엄청난 고역이었건만 엮힌 데 엮힌 격으로 홍수로 범람한 물이 우리가 지나야 하는 다리를 삼킨 바람에 더 먼 길로 하루 더 달려야 했다.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카트만두로 가고 있었고 달리는 버스에 부딪히는 차가운 바람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유리 구멍으로 승승 들어왔다. 가로등도 없어 정말 암흑 같은 밤에 그 구멍 두 개에 손가락을 끼우고 잠을 청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네팔인들이 버스를 지나가지 못하게 도로를 막았다. 엄마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장례식이 있으면 종종 길을 막는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왕 멈춘 김에 몸이라도 풀 겸 버스 밖으로 나가 체조를 했다. 달을 보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데 갑자기 밀이 허전했다. 바로 앞이 절벽이었던 것이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1미터가량 떨어졌을 때 역세고 긴 풀들에 다리가 엉켜 걸렸고 아با와 버스에 타고 있던 중들과 아주머니들이 합세해 끌어당겨 주셨다.

그때 나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날이 밝으면서 태양에 비친 아찔한 절벽을 보는 순간 나를 끌어올려주신 승객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인도에서의 경험 중 단연 기억에 남는 것은 6.0강도의 지진이었다. 한가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던 어느 날, 갑작스런 흔들림을 느끼고는 동생에게 의자를 흔들지 말라고 신경질을 냈다. 동생은 억울한 표정을 하고 자기가 흔든 게 아니라고 했다. 흔들림은 더 커졌고, 상황을 파악한 나는 “지진이야!! 아바, 오빠 빨리 나와!!” 하며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는 필사적으로 나가려는 사람으로 난리 통이었고 나는 깨진 타일조각을 밟아 베인 발로 사람들 사이에 끼여 발버둥 쳤다. 당황하는 내 손을 오빠가 잡아끌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 겨우 빠져 나온 나는 아파트 공터에서 아바와 동생을 찾았다.

지진은 멈췄지만 건물에는 금이 짙 짙 나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 있었고, 유리창은 성한 게 없었다.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 벌벌 떠는 나를 아바가 감싸 안아 주셨고,



오빠는 괜찮다며 다독여 주었다. 본인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는 게 참 고마웠다.

한국에 있던 엄마에게 전화하자 차분한 말투로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다. 여진의 위험성 때문에 한동안 건물로 들어가지 못했고, 나중에 다들 집으로 들어가 잔해를 치우는 데도 난 선뜻 건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망설이는 나에게 아바가 괜찮다며 만일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꼭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 침대의 끝자락에 서있는 지금, 나의 삶에 중요한 기억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나를 위해 울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던 한국 초등학교 단짝 다정이, 말이 통하는 친구 하나 없어 외로워하던 나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준 미히카, 절벽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나를 끌어올려준 많은 승객들,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어 든든한 우리 가족.

다사다난했던 크고 작은 일들 곳곳에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도움을 주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 삶은 더욱 빛나고 행복했다.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특별한 십대를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 기대된다. 사람은 추억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좋다. **장**

OKF NEWS

제주 세계한상대회 “200억 이상 경제유발 효과”



제주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 지난 9월에 열린 세계한상대회의 경제유발 효과가 200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9월 27~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15차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204억8천300만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201명의 고용 효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제주발전연구원은 소비지출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를 111억6천400만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48억8천600만 원, 고용유발 효과를 157명으로 계산했다.

1인당 소비지출은 국내 참가자 151만9천 원, 국외 참가자 253만4천 원이다. 소비지출은 참가자의 숙박, 식음료품과 물품구매 등의 경비를 말한다.

운영비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9억6천500만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4억6천800만 원, 고용유발 효과는 44명으로 집계했다.

운영비 지출이란 프로그램 진행·운영비, 홍보비, 만찬비, 차량임차비, 기념품비

등이다. 운영비 지출총액은 17억6천500만 원이다.

간접효과로 도내 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5건 230만 달러 계약이 성사됐으며, 비즈니스 상담 및 도내 기업체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대회 기간에 기업전시회를 포함해 1대 1 비즈니스 미팅으로 총 6천99건 1억1천 800만 달러의 상담을 벌이는 등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08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서 개최한 세계한상대회는 리딩 CEO 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네트워킹, 해외 취업 프로그램, 지역 세션(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산업 세션(신기술, 식품 가공), 특별 세션(중국 동북 3성)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5개국 한상기업에 청년인턴 파견



세계한상대회 기간인 9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상&청년, Go Together!'에 도전한 국내 청년들이 공개오디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상(韓商) 기업과 연계해 청년 인턴 4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단은 지난 9월 개최한 제15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청년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계기로 15개국 17개 한상 기업이 고국의 청년 인재를 선발해 인턴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파견된다.

재단은 지난해 청년 인턴 22명의 해외 취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모두 23개국 49개 기업에서 110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해외 인턴십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해 한민족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학교 회장단, 고국서 역량강화 연수



재단은 13개국 한글학교 회장단 35명을 초청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기 이천의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3개국 한글학교 회장단 35명을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를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요르단, 베트남 등에서 방한한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장들은 경기 이천의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서 한국어 교육법, 학교 운영 선진화,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들은 성공적인 한글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국 차세대 한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널리 알리는 방안도 모색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의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재외동포사회' 특강, 서울 대한민족역사박물관·경기 여주 세종대왕릉 탐방 등도 이어졌다.

재단 관계자는 "한글학교는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가 각국 한글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전문성을 키우고 고국과 교류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 민족교육 실태와 정책방향' 세미나



11월 8일 일본 도쿄의 민단중앙회관에서 '재외동포 민족교육 실태 심화 조사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 발표 세미나가 열렸다.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재일 동포 민족교육은 다문화 공생을 지향하는 '글로벌 시티즌십'(Glocal Citizenship) 육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외동포재단 연구용역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재단의 연구용역을 맡아 '재외동포 민족교육 개선 연구'를 총괄 진행한 이수경 도

교가쿠게이대 교수는 11월 8일 일본 도쿄의 민단중앙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 민족교육 실태 심화 조사 및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재외동포 사회가 직면한 상황에 특화된 민족교육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glocal)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아야 하므로 '한민족'의 뿌리 위에 다문화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교육 실태조사에는 이 교수 외에 권오정 류코쿠대 명예교수, 김태기 서울대 교수, 김웅기 홍익대 교수,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재일 한국계 학교, 일본 학교 내의 민족학급, 한글학교, 모국수학 등에 대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교수는 "재외동포의 민족교육은 학교 부족,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교재와 교수법, 교원 전문성 부족, 모국사회의 이해 부족, 교육 기관 간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차세대가 탈(脫) 민족화와 일본 사회로의 동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일 차세대를 한·일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류 사회에서도 활약하는 인재로 육성하려면 '민족교육'이 민족주의에 함몰해서는 안 되며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민족의식·애국심·충성심 등 배타적 자질을 키우는 일방적 민족교육 지양 ▲각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있는 현지화된 교육 계획·교재 수립 ▲양질의 교사확보와 처

우개선·재교육 ▲재외동포의 특수성에 대한 모국 이해 확대 ▲다문화 공생 교육으로 일본 사회의 이해 확보 등을 꼽았다.

그는 "현지화한 재외동포를 '반(半)일본인'으로 바라보며 배척하는 모국의 시선으로 인해 차세대가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정서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재외동포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

최동준 재외동포재단의 기획이사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민족교육 개선 방안을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내년 동포사회 지원사업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내년 재단이 지원할 동포 관련 사업을 모집한다.

각국 동포 관련 연구기관·협회·단체·교육기관 등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동포사회의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할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동포사회의 민족 정체성 강화, 차세대 동포의 교류 확대, 중국 및 중앙아시아 한글 신문 발간, 한글학교 역사문화 캠프, 한인회관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2월 16일까지 온라인(www.korean.net)과 거주국 공관으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2-2-3415-0054/0056)나 이메일(pms01@okf.or.kr)로 문의할 수 있다. 

식감 좋고 영양 풍부한 동해안 겨울 별미 도루묵 '톡톡' 알 터지는 소리를 느끼며 먹는 맛, 일품



1. 겨울 별미 도루묵찌개. 얼큰 담백한 도루묵과 함께 찜개에 넣어 먹는 무는 깊고 부드러운 맛을 더해 준다.
2. 2016 도루묵 축제(11월 18~27일)가 열리는 속초 청호동 속초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집어온 도루묵을 하역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겨울철 동해의 포구와 어촌은 아무리 바닷바람이 매서워도 도루묵이 있어 훈훈해진다. 노란 배에 터질 듯 알이 가득하고 살 또한 부드럽기 그지없다. 숯불에 익히는 도루묵구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할 뿐 아니라 고소하고 깔끔한 맛에 입 또한 즐겁다. 도루묵은 한때 동해안 지역에서는 '개도 물고 다닐 만큼 흔한' 생선이었다. 흔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맛과 영양 등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 어자원이 하루가 다르게 고갈돼 가면서 도루묵은 진가를 발휘했다. 도루묵은 생김새는 볼품이 없지만, 미각은 한껏 돋운다. 이제 동해안 영북 지역의 겨울 별미로 대접받는다. 조선 정조 때 문신 이의봉이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과 조재삼이 지은 '송남잡식(松南雜識)'에 도루묵의 우여곡절 사연이 기록돼 있다.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는 피란길에 수라상에 오른 '묵어'라는 생선을 맛보고 감탄해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가 다시 은어

를 먹어보고는 당시 먹던 그 맛이 나오지 않자 "도로 묵이라고 하라"고 해서, 도루묵이 됐다고 한다. 도루묵과 관련한 설화의 주인공 공은 선조가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 학자도 있다.

도루묵은 등 쪽은 황갈색을 띠고 옆구리와 배는 은백색이다. 수심 200~400m의 모래가 섞인 펄 바닥에서 주로 서식한다. 몸의 일부를 바다에 묻은 채 지낸다. 주로 작은 새우류, 요각류, 오징어류, 해조류 등을 먹는다. 수심 2~10m의 해조가 발달해 있는 지역에서 11~12월에 산란한다. 저층 트롤어업, 정치망어업 등으로 어획된다. 입 모양, 가슴지느러미의 형태로 미루어 이 종의 서식 지역이 바닥임을 알 수 있다. 알래스카 주, 사할린 섬, 캄차카 반도, 한국 동해 등의 북태평양 해역에 분포한다.

도루묵 맛을 제대로 즐기는 요리는 찜개와 구이, 조림 등 다양하다. 냄비에 무를 깔고 도루묵을 얹은 다음, 파·마늘 등 갖은 양념에 굵은 소금으로 맛을 낸 도루묵찌개는 비린내가 거의 없는

▶ 아바이 마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함경도 출신 실항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행정상 명칭은 청호동이고 아바이마을은 속칭이다. 1·4 후퇴 당시 국군을 따라 남하한 함경도 일대의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게 되자, 휴전선에서 가까운 바닷가 허허벌판에 집을 짓고 집단 촌락을 형성했다. 이후 함경도 출신 가운데서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를 따서 아바이마을로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실항민 1세대는 거의 없고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육로가 생겨나기 이전에 속초 시내와 아바이마을 사이에 놓인 속초항 수로를 건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직사각형 모양의 거룻배인 ‘갯배’를 타면 옛 정취가 느껴진다. 먹을거리로는 일명 ‘아바이순대’로 불리는 오징어순대가 별미로 꼽힌다.

▶ 속초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속초등대 → 영금정 → 아바이마을 → 엑스포공원 → 대포항 → 속초관광수산시장
- 관광안내
설악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033-635-2003)
고속버스터미널안내소 (033-639-2689)
- 대중교통
고속버스(서울·동서울 - 속초 2시간 30분 소요)
- 식당정보
속초관광수산시장 (033-633-3501)
대포항 (033-633-3171)



3

3. 숯불에 익히는 알이 가득 밴 도루묵구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할 뿐 아니라 고소하고 깔끔한 맛에 입 또한 즐겁다.



4

4. “도루묵 드시러 오세요.” 도루묵 축제 행사장에서 어민들이 손님상에 널 도루묵을 굽고 있다

데다 국물 맛이 담백하다. 알 밴 도루묵구이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통통하게 알이 밴 도루묵을 숯불이나 연탄불 위 석쇠에 올려놓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운 다음, ‘톡톡’ 알 터지는 소리를 곁들여 먹는 구이야말로 별미 중의 별미다. 도루묵은 조림이나 식해로도 만들어 먹는다. 도루묵 식해는 함경도 지방 향토음식인 가지미식해처럼 좁쌀과 무, 엿기름, 고춧가루를 넣은 뒤 3일에서 1주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다.

도루묵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가 많이 포함돼 있어 성인병 예방과 성장기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갈습도 풍부하다. 과거 동해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도루묵은 10여 년 전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명태처럼 씨가 말라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치어 방류사업과 어획량 조절 등의 노력을 펼친 결과 3~4년 전부터 개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속초 시는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청호동 속초수협 주변에서 제4회 도루묵 축제를 열고 양양군도 12월 초 물치항에서 도루묵 축제 행사가 펼쳐진다. **[장]**



5

5. 도루묵이 알을 낳으려고 연안에 몰려오는 겨울철, 동해안 방파제에는 낚시꾼들로 북적인다.

6. 2016 도루묵 축제가 열리는 속초 청호동 속초수협 행사장에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살아 있는 도루묵을 맨손으로 잡는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6

바른 말 고운 말

방대하다 우리말에는 '크거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말로 어울려 사용되는 명사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로 지은 공연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방대한 장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대한 장소'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바로 형용사와 명사가 서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하다'라는 말은 '방대한 예산'이라든가 '방대한 계획'과 같이 양이나 규모가 매우 많거나 크다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공간적인 의미에서 크다고 할 때는 '방대하다'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크다고 할 때 '방대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대하다'란 표현은 '광대한 평원'이라든가 '광대한 우주'와 같이 매우 크고 넓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웅장하다'란 표현도 있지요. 이 말은 '웅장한 저택', '웅장한 교향곡' 등처럼 대단히 크고 위엄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뜻이 비슷한 표현 사이에서도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문맥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골라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목돈/뭇돈 "우리 집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둘이라 등록금 낼 때는 목돈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등록금 마련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낼 때쯤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러뜨리지 않고 한목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돈을 '목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목돈'이라고 쓰는 분도 있고, '뭇돈'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목돈'이 맞습니다.

반면에 '뭇'은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의 뭇을 나눌시다'라든가 '내 뭇은 얼마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로 나눈 부분을 셀 때 쓰는 말로 '한 사람이 두 뭇을 한다'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된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장소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간혹 '뭇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목이 좋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5. 병의 아가리나 구멍 등에 끼워서 파는 물건
17. 서로 맞붙어 치고받으며 싸움
18.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20.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함. 또는 그것에 대해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등을 줌
22.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24. 연의 행정을 통할하고 집행하는 기관장
26. 살갓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물감으로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거나 새긴 것
29.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 자는 맹덕(孟德). 황건의 난을 평정해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했다.
30. 큰 물고기
31. 나라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32. 관청이나 회사, 가게 등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11. 넓고 오래된 쇠. 또는 그 조각
12. 억지가 매우 심해 자기 의견만 내세워 우기는 성미. 또는 그런 사람
14. 나이가 적을 칭
16. 투표함을 열고 투표의 결과를 검사함
19.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함
21.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작은 문
23.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간장에다 쇠고기를 넣고 조리 반찬
27.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
28.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

▶ 오른쪽 방향 열쇠

2. 갑자기 세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등을 동반한다
4.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5. 깊은 바다 밑에 많은 산호충이 모여 높이 50cm 정도의 나뭇가지 모양의 군체를 이룬 것
7. 간잡을 수 없이 타는 불과 같이 매우 급함
8.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고기
12. 나무의 몸체에 박힌 가지의 뿌리
13. 목적하는 바를 이룸

▶ 아래쪽 방향 열쇠

1.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3. 항공, 항해 등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 지시계기. 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다
4. 같은 학급이나 같은 학년의 학생
6. 몸의 길이는 2m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 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인 동물.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9.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등이 옳거나 좋다고 판단해 수긍함

▶ 11월호 정답

스	무	고	개	지	진		
파			구	령			하
이	불		명	청	이	종	교
	만	두	훈		초	점	
		만	세	미	음		
	요	강		고	속	담	
물	새		춘	향	전	배	추
방			궁	깃			위
아		모	기	불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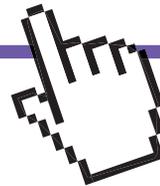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